

홀트 소식

아이들은 사랑받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SUMMER 2017 | VOL. 186



여름 이야기

김중근 씨 부부는 다해를 만나고 나서야 진정한 관계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연애부터 결혼까지 오랜 시간을 함께했지만 서로의 바닥 깊은 곳, 진짜 모습을 보고 이해하게 된 건 오롯이 다해 덕분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그 깨달음의 가치와 소중함을 다해에게도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부가 공모전에 응모한 이유입니다. (4P 계속)

사진 | 이록 사진작가·Looks Studio

- 04 아름다운 행복
- 08 행복한 가족 만들기
- 12 Dear Family Box
- 15 홀트 인터뷰
- 18 사랑으로 크는 아이들
- 20 희망풍경 1
- 22 희망풍경 2
- 24 희망풍경 3
- 26 나눔기업
- 28 나눔이웃
- 30 Holt News



홀트아동복지회 모바일 홈페이지
m.holt.or.kr

통권 | 186호 · 계간 발행일 | 2017년 6월 16일 발행인 | 말리 홀트 편집인 | 김대열
발간위원 | 김병수(홍보팀장), 조선미(국내입양팀장), 김혜성(아동양육팀장), 이은정(해외사업팀장), 박꽃송이(나눔협력팀장), 박재범(나눔지원팀장), 이창선(일산복지타운), 신유정(홍보팀) 발행처 | 홀트아동복지회 홍보팀 디자인 | 알투디투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9 TEL : 02-331-7171 FAX : 02-331-7149
이메일 | pr@holt.or.kr 홈페이지 | www.holt.or.kr
구독 요청 · 좋은 사연 · 좋은 제언을 기다립니다.

홀트아동복지회	
말리 홀트 이사장 이해경 이사(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임부웅 이사(HICS 부회장) 정용근 이사(전)동국대학교 교수 설태호 이사(주북상사 대표) 김경희 이사(전 홀트전국후원회 회장) 김정오 이사(연세대학교 교수) 박경수 이사(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홍현국 감사(공인회계사) 최수열 감사(공인회계사)	
본부 전국미혼모지원센터	T.02)331-7000 T.1588-7501
지방사무소 서울사무소 www.holt.or.kr 강원사무소 www.kwholt.or.kr 경기사무소 www.kgholt.or.kr 광주사무소 www.gjholt.or.kr 대구사무소 www.dgholt.or.kr 부산사무소 www.bsholt.or.kr 인천사무소 www.icholt.or.kr 전북사무소 www.jbholt.or.kr 충청사무소 www.ccholt.or.kr	T.02)331-7000 T.033)251-2344 T.031)217-5999 T.062)227-8877 T.053)756-0183 T.051)465-0224 T.032)424-0145 T.063)288-0880 T.042)586-1983
부속기관 홀트일산복지타운·일산요양원 홀트학교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봉종합사회복지관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달서구분리종합사회복지관 춘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31)914-6631 T.031)915-2911 T.031)929-1400 T.051)543-2431 T.031)790-2900 T.053)746-7501 T.051)760-3600 T.053)563-1007 T.033)251-8014 T.02)3142-5482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입양가정지원센터 홀트 대구심리상담센터 홀트 광주심리상담센터 홀트 인천심리상담센터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홀트미추홀 전주영아원	T.031)790-2966 T.02)6938-5550 T.053)627-8875 T.062)363-8878 T.032)424-5839 T.032)424-1391 T.070)8210-1601 T.063)222-1559
홀트대구어린이집 마포어린이집 중동어린이집 홀트어린이집 하남은방울어린이집	T.053)746-7504 T.02)334-4743 T.02)375-6755 T.031)217-0437 T.031)790-2970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아름뜰 www.holtarum.or.kr 고운물·홀트고문학교 www.goun.or.kr 아침뜰 www.achim.or.kr 마포클로버 www.mapoclover.or.kr 대전클로버 www.djclover.or.kr 대구클로버 www.holtlove.or.kr 광주클로버 www.holtlove.or.kr/gj-clover	T.02)334-4614 T.031)216-9004 T.042)585-3004 T.02)322-3325 T.042)583-4006 T.053)654-0181 T.062)361-5900
국제개발협력사업 캄보디아사무소(홀트드림센터) 몽골사무소(홀트드림센터) 탄자니아(홀트드림센터) 네팔(홀트드림센터)	T.070)8244-7019 T.070)4006-4116 T.02)331-7085 T.02)331-7085

홀트아동복지회는 1955년 설립되어 소외된 아동·장애인·이웃을 돕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이며 전국 9개 사무소를 통해 국내입양 활성화를 펼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यो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막9:37)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약동하는 봄의 계절의 지나고, 가지마다 짙은 녹색으로 갈아입는 여름의 계절에 홀트 가족들 모두 싱그러운 삶이 되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4월 장애인의 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장애인의 달을 맞아 국가와 장애인단체에서 다양한 행사를 하는 중 95년부터 스포츠를 통한 재활을 목적으로 시작된 홀트전국휠체어 농구대회가 제23회를 맞이하였으며, 홀트일산복지타운 체육관에서 열린 대회에서 9년 만에 홀트팀이 우승하여 기쁨이 두 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홀트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가정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문턱을 넘어가고 사랑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가정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출산 했지만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부모로부터 이탈된 위기 아기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가정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제정하였으며 올해로 12년을 맞았습니다. 입양의 날에는 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입양관련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입양은 아동복지 정책 중 가정의 울타리 속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일이 가장 우선이 되는 복지정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편견이 존재하고, 아동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아직도 보완해야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홀트는 55년부터 설립자 홀트 부부의 "모든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랄 권리가 있다."는 사랑의 정신을 이어 받아 아이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으로



믿고 있으며, 사회 환경이 변화된다 해도 바뀔 수 없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혼한부모가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일에는 사회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홀트에서는 아기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긴급구호로 '곳곳맘'사업과, 한달분의 분유, 기저기, 물티슈, 이유식 등을 담은 '365 Baby care kits' 사업을 펼치고 있고, 기증받은 물건을 판매하여 미혼한부모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캥거루스토어' 운영, 자조모임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다양한 아동양육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혼한부모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기와 함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내를 넘어 세계 최빈국 아이들의 삶에도 관심을 갖고 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 네팔 등에서 아이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그날 까지 홀트의 헌신과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홀트가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과 물질적인 후원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격려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김대열 올림

관계와 사랑을 가르쳐준 다혜에게

‘아름다운 행복’ 동영상 부문 대상 김종근 씨 가족



김종근 씨 부부가 연애를 하고 함께 결혼해서 사는 수년 동안 둘은 자신들이 세상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천생연분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혜가 온 후 서로가 모르던 부분, 숨겨져 있던 저 밑의 모습까지 보고 나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은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온 것이며 이제야 진짜 서로의 내면을 보고 배려하며 관계와 사랑을 배워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세상에 다시없을 보물, 바로 다혜 덕분이라는 것을.

동영상에서도 느꼈지만 다혜는 참 밝은 아이입니다. 온몸으로 놀아주는 아빠 덕분에 다혜가 에너지가 넘치는 것인지, 다혜의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할 수 없어 아빠가 온몸으로 다혜와 놀아줄 수밖에 없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쪽이든 시종 까르르 넘어갈 듯 웃어대는 아이의 목소리가 함께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엄청난 에너지이저예요. 웬만한 남자애들은 저리 가라죠. 그러면서 도 그림 그리거나 종이 오리기를 좋아하는 정적인 부분도 지녔고,

집중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한 가지에 몰입하기 시작하면 한 시간 이상 꼼짝도 하지 않죠.” 아빠와 신나게 뛰어노는 다혜를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젓던 엄마 김수미 씨가 결국은 함박미소로 마무리하며 딸 사랑을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존재만으로도 주변을 환히 빛나게 해주는 아이를 왜 2년 전에야 만났는지,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아쉬울 뿐입니다.

“생각지도 않던 입장을 목사님이 적극 추천하셨어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편견을 가지고 있던 터라 첫째는 좀 더 노력을 해서 낳고, 둘째를 입양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1년 넘게 고민했는데 결국 다혜를 만나게 됐죠. 이후 참 많은 게 변한 것 같아요. 특히 저희 부부가.”

하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그리고 ...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둘이 살 때, 그들은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항상 좋은 게 좋다는 식이었고, 자신들은 정말 찰떡처럼 잘 맞는 사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다혜가 온 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자유롭게 살던 두 사람에게 다혜는 일종의 과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처음 키워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서로의 바닥을 드러나게 했고, 전에 없던 예민함을 보이게 했죠.

“다혜를 만나고 나서야 진짜 서로에 대해 알게 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외아들이라 더욱더 제가 생각하는 게 맞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생각보다 아내를 배려하지 않고 있으며 그 사람이 느끼는 아픔에 진정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다혜가 오고 나서야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것이지, 어찌면 이전에는 진심으로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지도 몰라요. 엄청 반성하고 있어요(웃음).”

부부가 동영상을 통해 다혜에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도 바로 이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관계’와 ‘사랑’에 대해 부부가 하고 싶은 말을 편지 형식으로 만든 것이죠.


“누군가와 같이 살아가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알아야 하고 너를 알려면 너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한다. 네가 생각하는 네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네가 진짜 너다, 라는 걸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저희 부부가 요즘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고집이 세지는 네 살이 된 다혜가 요즘 가장 많이 꾸중 듣는 부분도



바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엄마. 워낙 아이를 좋아하고 관련 지식이 풍부한 덕분에 조곤조곤 아이를 설득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지닌 그녀와 달리 한없이 자상하고 부드러운 것만 같은 김종근 씨는 의외로 3번까지 참지 못한 채 울컥하고 만다네요.

“입양부모 교육에서 많은 걸 배워요. 유치원에서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배울 때 입양 사실을 알려주는 게 좋다길래 저희도 내후년부터 얘기를 시작할 계획이에요. 한사랑회가 무척 큰 도움이 된다길래 앞으로 열심히 참여할 거고요.”

먹는 것과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부부, 웃는 모습이 꼭 닮은 부녀, 잘 웃고 유쾌한 성격이 똑같은 모녀, 그리고 웃는 것뿐만 아니라 작은 행동 하나까지 점점 닮아가고 있는 가족은 곧 네 명이 될 계획입니다. 둘째 입양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셋째까지 입양하고 싶다는 김종근 씨 가족이 앞으로 더 큰 축복 속에서 얼마나 깊고 넓은 관계와 사랑을 배워나갈지, 지켜봐주세요. 

소중한 내 아이, 행복한 우리 가족

입양에 대한 우리사회 인식을 높이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아름다운 행복' 제 11회 아름다운 행복 수상작을 소개합니다.



이른 봄날, 그네뛰기! - 장서경

윤서는 처음 본 저에게 덩석 안겨 "엄마!" 하더니 기다렸다는 듯, 왜 이제 왔냐는 듯, 아빠와 다섯 살 오빠의 손을 잡고 너무나 평온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왔습니다. 딸 윤서는 애교가 많습니다. 늦은 귀가에 아이들이 깽깽 살금살금 들어오는 아빠를 기다렸다는 듯이 "아빠"라고 부르며 품에 꼭~ 안깁니다. 딸의 이런 애교와 사랑스러움에 아빠는 힘든 하루의 피곤함이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날씨가 좋은 주말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열심히 나가려고 합니다. 봄바람도 느끼고, 새싹도 보고, 꽃도 보고, 아직은 바람이 조금 차갑지만, 공원에서 봄을 기다리는 아들과 딸입니다. 이른 봄날 공원으로 산책하러 갔다가 줄을 서서 탔던 그네! 아빠와 아들은 이렇게 큰 그네는 처음 본다며 무서워서 못 타고, 용감한 엄마와 딸이 신나게 탔습니다.

◎ 사진 부문 수상작

- 대상 : 장서경 <이른 봄날, 그네뛰기>
- 우수상 : 김영주 <언제나 널 지켜줄게>, 유해연 <리어카 가족>, 이보람 <하린이의 대가족>, 정해석 <든든한 우리 가족>
- 입상 : 강윤화 <꽃보다 초은이>, 고은미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집 보물 1호, 2호>, 김유경 <우리 형>, 양윤정 <하연아~ 오빠가 번쩍 들어줄게>, 원용목 <끝까지 손잡아 줄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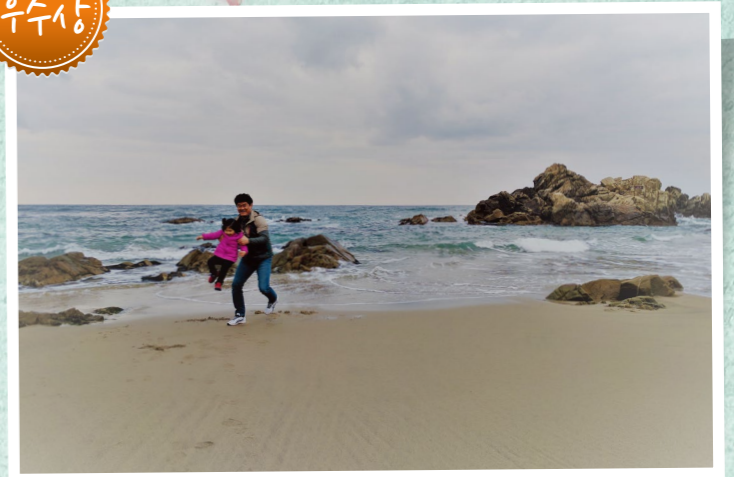
◎ 영상 부문 수상작

- 대상 : 김종근 <아빠의 편지>
- 우수상 : 김한수 <규달이는 땡땡땡이다>, 장희용 <우리들의 노래>
- 입상 : 광선화 <2017 아름다운 행복 뉴스>, 박미향 <그 한 아이>, 박재찬 <서로에게 소중한 선물, 가족>, 신소미 <우리 이렇게 살아요>, 장기혁 <우리 함께 가자!>, 정수아 <우리 이렇게 가족이 되었어요>, 최범규 <하경이의 성장 일기 '아름다운 행복'>



언제나 널 지켜줄게 - 김영주

"아빠, 엄마~ 바다 언제 가요?" 벌써 한 달째 바다에 언제 가느냐고 묻는 귀여운 우리 딸. 결혼 11주년 기념으로 우리 딸이 좋아하는 바다를 가기로 했습니다. 바닷가 가까이까지 뛰어갔다 파도가 치면 뛰어나오며 신나게 노는 우리 딸. 파도가 밀려와 미처 발을 빼지 못한 예성이를 아빠가 번쩍 들어 올립니다. 깔깔 웃는 딸의 웃음 소리가 아빠의 가슴을 흐뭇하게 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언제나 너를 지켜줄게.'



리어카 가족 - 유해연

홀트한사랑회 동북부 모임은 매년 여름에 한 차례씩 친목 도모를 위한 가족캠핑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스카우트연맹 중앙연수원 측에서 흔쾌히 장소를 제공해주셔서 서울에서 아주 가까운 장소에서 편하게 캠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캠핑 장비를 옮기기 위한 리어카가 있는데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홀트 동생들을 태우고, 끌고 다닐만큼 힘 좋은 나이가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들은 내 차지입니다. 가족들을 태우고 힘차게 나아갑니다.



꽃보다 초은이 - 강윤화

2017년 새해 첫날 우리 세 식구가 처음으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모두들 아기와 함께 여행 다니기 힘들 거라고 했지만 처음 가는 여행길에 초은이는 투정부리지 않고 방긋 방긋 웃어주어서 첫 여행을 즐겁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아침, 세 식구가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 타이머를 맞추어 놓고 뛰어오는 엄마의 모습이 재밌는지 까르르 웃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아기를 키우면 생활에 많은 제약이 생길 것이다'라고 단단히 각오했는데, 이러한 우려가 무색할만큼 지금 우리 세 식구는 여행과 쇼핑, 외식 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있으면 항상 즐거운 우리 초은이 덕분예요.



우리들의 아이를 위해 함께 키우고 함께 응원합니다 '미혼한부모 지원 사업'

한국사회에서 가족의 형태는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입양가정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 혈연 중심의 가족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에 가치를 두면서 생겨난 사회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홀트는 아동을 위한 '행복한 가족 만들기 100년'이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지원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중 시리즈로 다양한 형태의 가정과 홀트의 가족복지 사업을 소개합니다. 입양에 이은 두 번째 사업은 '미혼한부모 지원 사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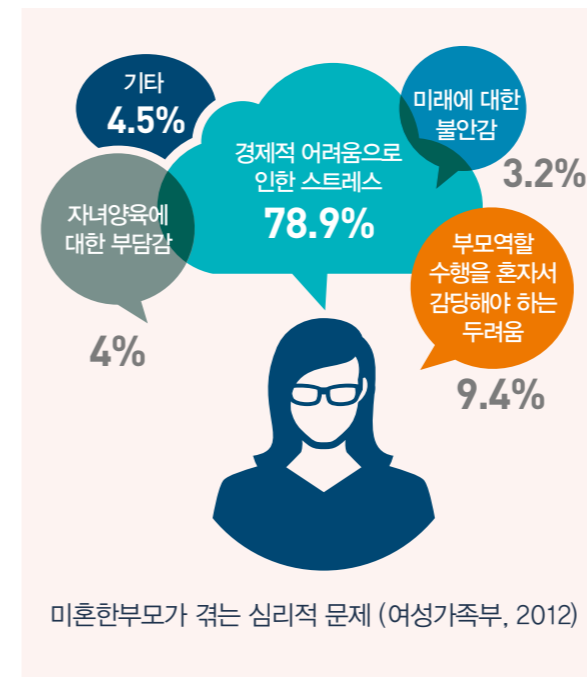
홀트는 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일을 시작으로 아동복지사업을 이어왔습니다. 과거 미혼한부모가 자녀 양육에 대한 업무를 내기 어려웠던 시절, 홀트를 통해서 많은 미혼한부모의 자녀가 국내외의 안정된 가정, 좋은 부모의 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한국사회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면서 국가 정책 또한 이에 맞춰 변화되었고, 실제 2011년 개정입양특례법에서는 친생 가족의 양육(원가족 보호)을 우선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의 기본권과 최선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아동이 친가정 및

출생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하는 점을 강조하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최근 미혼한부모들은 과거와 달리 자녀 양육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홀트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그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필요한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 가족의 외면 및 경제적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미혼한부모지원센터가 2015년 1월 1일에 신설했습니다. 미혼한부모지원센터에서는 미혼한부모가정에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물품 지원,

상담을 통한 정서 지원, 직업훈련 및 자립 지원, 주거 지원, 교육, 문화프로그램 지원, 대안학교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 아동양육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미혼한부모 가정을 위해 전국 5개 지역(서울, 수원, 대전, 대구, 광주)에서 7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숙식과 의료제공, 심리 상담과 치료, 자립교육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미혼한부모의 건강한 자립과 아동의 안정된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미혼한부모를 위한 경제·심리적 지원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혼한부모(여성)는 2만4487명(2015.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으로 추산됩니다. 미혼한부모 가족은 다양한 가족의 모습 중 하나이지만 대부분의 미혼한부모들은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며, 임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빈곤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0년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 실태 조사'에 따르면 미혼한부모들은 '경제적 문제'(33.9%)를 임신 이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이어 '마음 혼란'(26.6%), '아기 장래 문제'(11.2%), '가족과 관계'(10.7%) 순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도 미혼한부모가 느끼는 큰 어려움입니다.



미혼한부모는 부모 역할을 하는 데 있어 사회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느끼고, 양육에 요구되는 신체적 건강 상태나 우울감, 양육자로서의 유능감 영역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육스트레스가 장기화될 경우 부모-자녀 관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미혼한부모의 정신건강 뿐 아니라 건강한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도 양육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 등의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제공해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룹 활동의 활성화 또는 멘토 제도 등이 도입이 필요합니다. 홀트 미혼한부모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미혼한부모를 '사회의 당연한 구성원'으로, 미혼한부모 가정을 '다양한 가족 유형의 하나'로, 그리고 미혼한부모 스스로도 담당해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홀트 미혼한부모지원센터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1

상담을 통한 정서지원

온·오프라인 상담, 부모 상담, 자녀 양육 상담 등



3

아동양육비지원

싱글맘 아동양육 지원사업 '꽃꽂한 엄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한부모가정에 매월 지원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미혼한부모가 세운 지원금 사용계획에 따라 미혼한부모의 자립과 아동양육에 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꽃꽂한 엄마 지원현황

	지원가정수	소요예산(원)
2013~2014년	39	93,000,000
2015년	30	57,400,000
2016년	30	59,400,000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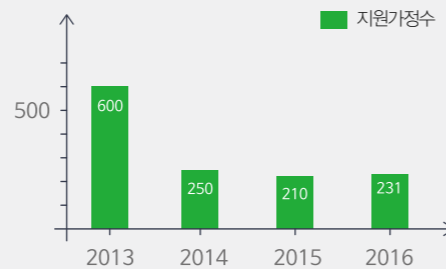
아동양육물품지원



365 베이비케어키트

365 베이비케어키트는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부족으로 미혼한부모들이 아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아동 양육물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키트는 분유, 유아간식, 기저귀와 물티슈 등 양육관련 생활용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65베이비케어키트 지원현황



4

주거지원

주거지원사업



미혼한부모의 주거와 자녀의 안정된 양육을 돕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미혼한부모(무주택세대주)에게 주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입주자는 임대기간 동안 관리비와 공과금만을 부담하며 주택면적에 따라 1~2가구가 입주합니다. 입주자에게는 부모교육과 상담프로그램이 상시 실시됩니다.

5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미혼한부모가정 자조모임

미혼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집단심리상담 프로그램, 문화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홀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미혼한부모가정이라면 언제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6

정서지지 프로그램

가. (주)롯데리아와 함께하는 Mom행복한 생일파티

미혼한부모가정 아동의 돌잔치와 생일파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돌잔치는 2016년 3월부터 진행해 오고 있으며 식사, 돌상, 답례품, 사진촬영 및 앨범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총 10 가정의 아동에게 돌잔치를, 총 100명의 아동에게 생일선물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롯데리아에서 돌잔치 제반비용을 전액 후원하고 있으며, 행사 진행시 임직원들이 봉사하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 올리브영과 함께하는 '뷰티풀 맘스데이'

2016년 9월부터 시작한 미혼한부모의 생일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혼한부모의 사회적 지지의 단절로 인한 상실감 해소 및 자아 존중감 증진을 통한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다. 학습환경 개선사업 '맘 행복한 미션'

미혼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재가 미혼모를 대상으로 자녀 공부방 만들기 등 환경 개선을 함으로써 미혼한부모에게 자유 시간 및 아동 돌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미혼한부모의 정서적 만족감을 증대시키고 양육의지를 고취시킴으로써 보다 안정된 자립을 돕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365베이비케어키트 지원가정의 감사편지

박스의 크기만큼이나 보내주신 분들의 큰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메모의 글귀와 무엇보다, 아기 분유와 기저귀 값이 강담하기 벅찬데 2~3개월 동안은 바로 바로 기저귀를 갈아 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항상 아기 기저귀를 손으로 만져보면서 팍채울 때까지 "조금만 더 있다 갈아 줄게"하며 아기 엉덩이한테 너무 미안했는데 기저귀를 보는 순간...보송보송하게 우리 아가 엉덩이 지켜 줄 수 있다는 생각에 함박웃음이 났어요. 분유 보자마자 한 통 들고 가는 아기 모습이 짝하면서 귀엽기도 하고...진심으로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은 아이로 행복하게 키울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미혼모로 7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00엄마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니다 미혼한부모가 되는 결정을 하게 되어 학업도 놓치고 싶지 않았고, 소중한 생명도 잃고 싶지 않은 욕심이 있었어요. 욕심쟁이가 된 저는 사랑하는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미혼한부모로 아이를 키운다는 건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뼈저리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진행한 365베이비케어키트를 통해 응원과 감동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너무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엄마의 길을 선택한 순간 걱정과 부담을 줄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응원에 힘입어 행복하고 건강한 아이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리아 돌잔치 '맘 행복한 파티' 참가자 감사편지

롯데리아 돌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그리고 직장동료 친구가 함께 해주었습니다. 제가 미혼한부모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입사한 회사였습니다. 그것에 대해 고민을 했는데 이 공모를 보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엄마로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있는 아기를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싶지 않았고 일로 당당히 인정받아야 할기에 당점된 후 밝혔습니다. 만약 회사에 민폐가 되면 퇴사해도 괜찮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직장동료와 상사 분들 모두 그 동안 마음고생 심했겠다고, 요즘 같은 시대에 아기를 버릴 만도 한데 책임감으로 엄마를 모시고 아기까지 키우고 가장 역할에, 일은 일대로 하느라 애썼다고... 그리고 모두 함께 해주었습니다. 맛있는 식사와 서비스 모두 어느 곳보다 따뜻함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다른 식사 하시는 분들이 구경 와서 우리도 저렇게 돌잔치 하자고 말하는 걸 들으니 기분 좋았고, 그리고 변호사 친구도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 친구도 미혼한부모의 자녀인데 제 사정을 알고 제 모든 걸 도와주려고 애쓰고 있는 친구입니다. 돌잔치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걸 직접 겪고 하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네가 말한 반쪽짜리 엄마는 없어. OO에게 너 세상의 전부이고 나 또한 네 엄마가 있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 라고요. 감사합니다. 엄마로 당당히 설 기회를 주셔서요.

아이들의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Dear Family Box 아기 신발 만들기

디어패밀리박스는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응원하고 돕는 참여형 기부 캠페인입니다. '디어패밀리박스 시즌 1 애착인형 만들기'를 시작으로 올해에는 '디어패밀리박스 시즌 2 아기 신발 만들기'가 출시되었는데,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든든한 가족의 울타리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응원해주세요.

디어패밀리박스의 시작

2015년부터 '아기를 지키는 한 땀'이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진행되었던 디어패밀리박스 시즌 1 애착인형 만들기가 많은 분의 참여로 지난해 말 종료되었습니다. 디어패밀리박스를 통해서 기대했던 부분은 한 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요보호아동들이 많이 있음을 대중과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보호아동이란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된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처한 아동을 뜻하는데, 아직도 약 5천 명에 육박하는 아이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디어패밀리박스 시즌 1은 그 아이들 모두 가정에서 행복할 수 있기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제작했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인형 만들기에 동참해주셨습니다. 뜯어진 내 옷 바느질도 서툰 사람들에게 인형 만들기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바늘에 손도 찔려가며, 어떤 이는 눈을 부릅뜨고 바늘귀에 실을 끼우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참여자들 대부분이 익숙하지 않은 바느질 한 땀 한 땀을 통해 완성된 애착인형을 들고는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애착인형은 위탁가정을 통해 아이들에게 전달되었고, 미혼한부모가정의 아이들에게는 양육 물품 키트에 포함하여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인형을 받아들이고 인형을 꼭 친 아이들의 사진을 보내주시는 위탁어머니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새로운 디어패밀리박스



많은 사람들의 성원 속에 시즌 1이 종료된 지 4개월 후, 시즌 2 아기 신발 만들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이야기를 많은 이들과 공감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첫걸음마 신발로 결정된 것이지요. 아이들이 국내외에서 새로운 가정을 찾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405일입니다. 그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생애 첫 이야기로는 뒤집기, 웅얼이, 걸음마 등이 있습니다. 내 아이에게 '처음', '첫 순간'이라는 말은 부모로서 꼭 기억해주고 싶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처음'을 지나간 후에야 가족을 만나게 되는 우리의 아이들. 누군가는 기억해야 할 아이들의 첫걸음을 함께 응원하고 싶습니다.

디어패밀리박스 시즌 2 아기신발 만들기 첫 단체참여가 4월 25일 홀트 강당에서 있었습니다. 홀트의 기관 중 하나인 마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봉사단이 그 주인공입니다. 유난히

맑았던 날씨와 함께 유치원 어린아이부터 고등학생 자녀까지 아기를 위한 한 땀에 동참했습니다. 아직 어려 처음부터 할 수 없는 유치원생 아이들은 부모님이 어려운 부분을 진행하면 나머지를 이어받아 완성했습니다. 참석했던 봉사자들은 "아이와 함께 의미를 담아 봉사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런 것에 소질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완성품이 예쁘게 나오니 더욱 보람이 있는 것 같다."라며 소감을 남겼습니다.

아이들 모두 가정의 품으로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 정현중 '방문객' 中 -

사람이 온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가정의 품으로 갈 때, 그 아이의 일생이 갈 때 정성 담아 만든 이 신발이 자그마한 응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응원에 함께 동참할 분들을 기다립니다. [Holt](#)

글_김유진 · 나눔협력팀

605 일간 진행



6,966 명의 참여



20,898 시간 봉사



120,000,000 원 후원모금



1 아기 신발 만들기 키트 구성품
2 아기 신발에 들어가는 카드에 정성스럽게 글을 쓰고 있는 어린이

Dear Family Box 2



참여방법

- ①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c1.holt.or.kr)에서 아기신발 만들기 키트 후원을 진행해주세요.
• KIT 1개당 참여후원금 20,000원 • 신청하실 때 주소 기록은 필수
- ② 택배로 키트를 수령하여 정성을 가득 담아 만들어주세요.
• 선물 받을 아이들에게 전달할 메시지 카드 작성도 잊지 않는 센스
- ③ 완성된 신발을 홀트아동복지회로 보내주세요.


자주 하는 질문

- ① 봉사활동 인증이 되나요?
네. 4시간의 봉사활동이 자원봉사 통합인증사이트 VMS를 통해 등록됩니다.
인증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완성사진>, <VMS ID>, <이름>, <연락처>입니다.
※ 키트 후원자와 봉사자의 이름이 다를 경우, 봉사 신청 시 <후원자명, 봉사자명>을 같이 기록해주시면 됩니다.
- ② 단체 봉사 시, 만드는 방법 강의도 가능한가요?
네. 30명 이상이고, 일정이 사전 조율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 ③ 아이들이 신을 수 있나요?
네. 신을 수 있습니다. 걸음마 신발을 신는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아이들의 첫 신발을 선물한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참여문의 : 02-331-7142~6 홀트아동복지회 나눔협력팀 ☐ 홈페이지 : c1.holt.or.kr

아픈 딸의 꿈과 사랑,
엄마에게서
또 다시 빛나다

 '몽유애(夢有愛)'
이경자 대표



Interview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이들의 행복, 희망, 꿈, 사랑을 담아내고자 하는 순수 국내 웨딩 의상 브랜드 '몽유애'는 그것이 품고 있는 가치만큼이나 큰 나눔으로 홀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홀트장애인합창단 '영혼의 소리로' 단복뿐만 아니라 '뷰티풀 맘스 데이(미혼한부모 생일파티)' 드레스 협찬 등의 활동으로 그야말로 '몽유애(夢有愛)'다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이경자 대표. 그녀의 아름다운 나눔의 세계 뒤에는 세상 누구보다 순수하고 예쁜 마음을 지닌 딸의 사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홀트에 후원을 시작한 건 7년 전이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나눔과 인연을 맺은 것은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재 40대인 딸이 중학교 때였으니 어느덧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시 학교 수업을 끝내고 돌아오던 딸아이가 우연히 버스 창밖으로 재활원에 있는 장애인들을 보게 됐대요. 무슨 마음에선지 그 길로 버스에서 내린 뒤 재활원으로 뛰어 올라가 함께 목욕을 거들었다길래 제가 물었죠. 대체 무슨 마음이었느냐고. 그랬더니 딸아이의 대답이 이랬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몸과 마음이 움직였다고.”

사실 그때만 해도 이경자 대표는 딸의 나눔 활동을 그리 흔쾌히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더없이 예뻐으나 훗시 어린 딸이 상처받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엄마의 만류와는 상관없이 나중에는 친구들까지 데리고 가 봉사활동을 하곤 했다는 원경 씨. 훗날 이 일은 이경자 대표에게 알려졌고, 그녀가 나눔에 대해 생각해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30여 년을 흘러 다시 이어진 인연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흘러 7년여 전. 매체를 통해 딸 원경 씨는 우연히 휠체어농구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래 전 재활원에서 인연을 맺은 한 남자를 발견했죠. 바로 홀트의 사회복지사 방필규 님입니다. 20년이 훌쩍 지난 시점에 서로 나이가 들어 예전과 외모도 달라졌지만 그녀는 그를 한눈에 알아보았고, 그로 인해 두 사람의 인연은 홀트와 원경 씨, 더 나아가 홀트와 이경자 대표님이 인연을 맺는 계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단복 치수를 재기 위해 처음 일산복지타운에 방문했던 날이 기억나요. 무척 밝은 얼굴로 마중을 나와준 그들을 보면서 ‘내 딸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줘야지’ 마음먹게 됐죠. 사실 제 딸이 큰 수술을 여러 차례 받고 죽다 살아났을 만큼 13년 전부터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직접 나눔을 실천하기는 힘든 상황이라 대신 제가 그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도 컸죠. 딸의 사랑이 제게 바이러스처럼 퍼졌나봐요(웃음).”

그때 이경자 대표에게 원경 씨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중학교 때의 나는 진짜 순수한 사랑을 가졌었나봐. 지금은 그때와는 또 다른 마음인 것 같아.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다시 그 사랑을 줄 거예요.”

자신을 돌보기에도 버거운 아픔을 겪고 있는 딸이 그 오랜 세월 타인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는 걸 보면서 가족의 마음은 더욱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이 한 치의 가식도 없는 정말 순수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족은 요즘 원경 씨에게 “건강해지면 꼭 사회복지사가 돼라”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자 대표 역시 오래 전 딸의 순수한 나눔 활동을 만류했던 시간과 화해하는 마음으로 더욱 온 마음을 다해 홀트와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타인에게 무엇이라도 해줄 수 있는 작은 능력이나마 지니고 있어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홀트는 축복이다!

딸로 인해 시작된 인연이지만 그녀의 나눔 활동은 갈수록 그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영혼의 소리로' 단복을 후원해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미용실과 스튜디오까지 직접 섭외해 멋진 사진을 촬영해주었고, 얼마 전에는 일산복지타운 장애인 부부의 결혼식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뷰티풀 맘스 데이에 미혼한부모들에게 드레스를 지원함으로써 생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선물하기도 했죠. 샵에 방문한 그녀들이 예쁘게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경자 대표는 그들의 손을 꼭 잡고 말해주었습니다. “당신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엄마대!”


“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딸이 시작한 일을 전 거든 것뿐이고, 미용실과 스튜디오의 도움이 있었기에 예쁜 모습과 추억을 선물할 수 있는 거죠. 남경희 헤어(516-8595), 청춘 스튜디오 이용희 대표(518-6828), 엠스튜디오 문창수 대표(511-9599)에게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이런 나눔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영광으로 여기고 언제나 흔쾌히 “OK!”를 외쳐주는 그들은 누구보다 든든한 저의 조력자들이랍니다.”

이경자 대표는 나눔은 그 자체로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나눔을 행한 후 삶의 매순간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커졌고, 뒤에서 소리 없이 묵묵히 수고하시는 분들의 훌륭함도 새삼 깨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되면 샵의 디자이너와 직원들도 직접 현장에 데려가서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것도 그래서죠.

“홀트와의 인연이 더욱 소중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예요. 나눔의 길을 걷게 해준 홀트는 축복과도 같은 존재니까요. 자원봉사자들, 중증의 장애인들과 같은 분들이 하시는 걸 보면 제가 하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면 전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홀트에서 만난 인연들 덕분에 딸 원경 씨는 최고의 의료진에게 치료받으며 호전돼가고 있습니다. 홀트 김경희 이사의 도움으로 국내 최고 의사들의 에스코트를 받던 날, 깜짝 놀란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저한테 왜 이렇게 친절한 거예요?” 이경자 대표는 말해주었습니다. “네가 오래 전 그들에게 줬던 사랑을 하느님이 돌려주시는 거야”라고.

이제 그녀에게 바람은 딱 두 가지입니다. 홀트와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며 언제까지나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딸이 하루 빨리 완쾌해 멋진 사회복지사로 거듭나는 것. 이경자 대표의 말처럼 현재 딸 원경 씨가 받고 있는 사랑이 예쁜 마음에 대한 하느님의 선물이라면, 이경자 대표의 바람도 분명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딸과 엄마가 함께 전하는 사랑이 이렇게 홀트 곳곳에 예쁘게 퍼져나가고 있으니까요.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8길 27
- 문의 : 02-541-8575~6

한 눈으로 보는 세상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대영이



홀트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중에는 크고 작은 의료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의료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대영이는 바로 그런 아동 중 한 명입니다. 대영이는 신생아 때부터 인형처럼 큰 눈이 매우 예쁜 아기였습니다. 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늘 무엇이 궁금한지 주변을 두리번거리고는 했던 대영이는 뇌초음파 결과에서 뜻밖에 뇌질환의 일인인 공뇌증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 몸이 뻣뻣하다는 정도였지만, 갈수록 오른쪽 팔과 다리의 편마비가 두드러지며 운동 발달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팔과 다리의 움직임을 돕기 위해 대영이는 현재 주 1회 외부 병원에서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후 5개월 무렵부터 현재까지 물리치료를 받아

온 대영이에게 물리치료실은 여전히 아프고 무서운 공간입니다. 물리치료실에서 세상이 떠나갈 듯 우는 대영이를 바라보는 위탁어머니는 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대영이를 위해 마음을 굳게 먹고 언제 어디에서나 쉬지 않고 팔과 다리를 마사지 해줍니다. 또한 대영이는 현재 오른쪽 눈의 외사시를 치료하기 위해 안경 치료 및 가림 치료를 진행 중입니다. 하루에 세 시간씩 한쪽 눈을 가린다는 것은 성인에게도 매우 답답한 일입니다. 대영이 또한 가림 치료를 할 때마다 짜증을 내며 눈에 붙은 테이프를 떼어내려 해서 위탁어머니와 작은 실랑이를 벌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안경을 답답한 듯 손으로 벗어내려 해서 위탁어머니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경을 벗어내고 던져서 안경이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대영이와의 실랑이 끝에 위탁어머니에게는 작은 요령이 생겼습니다. 밖에 나오는 것을 좋아하는 대영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가림 치료를 하는 3시간 동안 대영이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3시간 이상 밖을 돌아다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대영이를 위해 위탁어머니는 거의 하루도 빼먹지 않고 외출을 준비합니다.

물리치료와 작업 치료, 그리고 외사시 치료가 끝나면 좋겠지만 대영이는 언어발달 또한 지연되어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주 2회 언어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탁어머니가 곁에 없으면 치료실이 떠나가라 울며 치료에 협조가 되지 않는 대영이를 위해 위탁어머니는 언어치료실 주위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조금 여유가 생겼는지 언어치료사 선생님께 먼저 장난감을 내밀며 함께 놀자고 하니 대영이에게는 정말 큰 발전입니다. 대영이의 낮가림을 조금이나마 호전시키기 위해 현재 주 3회 홀트의 발달놀이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래 친구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함께 어울리고 싶어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짜증을 내며 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대영이의 모습에 마음이 아픈 위탁어머니는 대영이가 친구들과 조금이라도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영이의 위탁어머니는 약 7년간 홀트의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탁어머니에게 대영이는 아픈 손가락이자 가장 애정이 가는 아이입니다. 위탁어머니는 대영이와 일주일 내내 치료와 검사를 받으러 나오면서도 대영이가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에 큰 힘을 얻고는 합니다. 바쁘게 나오느라 본인은 밥도 먹지 못하면서도 대영이 밥은 통에 꼭꼭 눌러 담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위탁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대영이에게 '입양가정'이라는 따뜻한 소식이 불어 오기를 소망합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어린 생명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고 있습니다.

ARS 060-700-1006
정기후원 1899-0923
후원계좌 기업은행 048-036405-04-014

다섯가지 키워드로 알아보는 홀트가족나눔교육



학교폭력,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인성이란 무엇일까 하는 고민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가 불안정하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아이들의 인성과 도덕성이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바른 인성을 교육하는 '인성 교육'이란 더불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배려, 사랑과 같은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홀트에서는 교육경력이 있는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이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인성 교육인 '홀트가족나눔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고,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홀트가족나눔교육'을 소개합니다.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패밀리 메이커(Family Maker)'

'홀트가족나눔교육'은 인성 교육과 함께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알아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패밀리 메이커'를 양성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서로 돕고, 배려하며 살아가듯이 친구들과 이웃과 가족처럼 지낸다면 세상은 얼마나 따뜻해질까요? 홀트 나눔교육은 먼저 '가족알기'에 대해 배웁니다. 가족이 혈연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친구, 이웃과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인데요, '너와 나는 가족일까?' '우리 모두가 가족이라면?' 등의 질문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 청소하기, 엄마를 위해 집안일 돕기, 할머니의 무거운 짐을 나눠들기처럼 작지만 큰 나눔을 실천하는 '패밀리 메이커'로 살게 됩니다. 친구·이웃을 가족으로 만드는 사람, 패밀리 메이커가 지니고 있어야 할 마음을 다섯가지 키워드로 알아봅니다.

#하나. 가족 - 사랑과 배려가 있는 공동체



흔히 우리들은 가족이란 단어를 들으면 결혼, 혈연을 통한 가족 구성원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아빠, 엄마, 형제, 자매를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형태는 꽤나 다양해 졌는데요,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의 관계가 아닌 서로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모든 공동체를 말합니다. 단순히 우리 가족뿐만 아닌 우리 반, 내 친구, 우리의 이웃도 한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게 가족이다!' 이 마음이야말로 패밀리메이커가 가져야 할 기본 마음입니다.

#둘. 나눔 -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나눔은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불쌍해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패밀리 메이커가 나누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실천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마치 우리 몸에 혈액이 돌아 삶을 지속할 수 있듯,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랑과 배려가 있는 공동체인 친구, 이웃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가족을 조금씩 확장하는 일, 그래서 다양하고 쉬운 나눔을 실천하는 일, 패밀리 메이커를 통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합니다.

#셋. 자존감 - 나를 알고, 사랑해야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안다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선행되어야 할 실천사항입니다. 가족, 공동체, 그 이전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내가 무엇에 대해 어려움을 갖는지를 안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과 상황을 사랑하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란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며 자존심과는 상반된 마음입니다. 사랑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 받는 게 아닌, 나는 존재 자체가 인정받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자존감이 높은 아이 일수록 세상을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넷. 공감 - 상대방을 이해하는 방법

현대 사회의 진정한 문명은 '공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공감능력은 남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느끼는 능력으로써 혼자만으로 살 수 없는 인간에게 필수적인 능력인데요, 나눔과 협력의 씨앗이 되는 공감은 이타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마법이기도 합니다. 공감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팀워크와 협력에 강하며, 주변에 사람을 항상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힘을 갖게 됩니다.

#다섯. 소통 -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

사람과 세상은 무엇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바로 언어인데요, 언어는 지식과 생각을 전달하고, 사람과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전체 의사소통 중 90%이상을 차지하는 비언어적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스처, 말투, 표정 등의 비언어적 표현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공감하는 것은, 상대방과 풍성하고 행복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5가지의 키워드를 조화롭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패밀리 메이커, 가족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단순히 가족구성원을 만드는 것이 아닌 내 이웃에게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혁신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혁신가가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더욱 아름다워지고 행복해 질 것이라 믿습니다. 실제로 '홀트가족나눔교육'을 받은 이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한 학생이 자신보다 더 어려운 미혼한부모와 그 자녀를 위해 아르바이트비 일부를 후원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앞으로 많은 학교와 기관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착한교육 '홀트가족나눔교육' 패밀리 메이커는 계속될 것입니다.

글_채성현·나눔협력팀



홀트아동복지회는 교육부로부터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은 공신력 있는 교육단체입니다.

- 교육문의 : 나눔협력팀(02-331-7143)
- 교육신청 :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www.familymaker.or.kr)

SK와이번스, 가정의 품을 찾아 홈인(HOME IN)!



홀트와 SK와이번스가 5월 11일 입양의 날을 앞두고, 가정의 품을 기다리는 아동들이 새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희망더하기 2017'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리는 두산 베어스와와의 주말 홈경기에서 홀트와 함께 입양대기 아동 새 가족 찾기를 한 것인데요, 이날의 특별한 풍경을 담아봤습니다.


입양대기 아동을 위한 희망더하기

야구장 1층 복도에서는 미혼한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일자리 공간을 제공하는 공익형 매장 '캥거루스토어' 판매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야구장을 찾은 많은 분들은 취지를 공감하며 인형, 화장품 등 소소한 물건들을 구매했습니다. 판매 부스 옆에는 '희망더하기 2017 캠페인-입양대기 아동 새 가족 찾기' 캠페인을 알리고, 입양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홍보 부스도 마련했습니다. 입양 절차, 입양 상담 안내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입양가족 사진전도 함께 진행되었는데요, 야구 관람을 앞두고 들뜬 마음에 입양가족들의 훈훈한 사진이 더해져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늘 위로!

“하나 둘 셋, 입양대기 아동에게 따뜻한 가정을! 하얀 풍선을 머리 위로 날려주세요!” 사회자의 찜찜 찜찜한 멘트가 장내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일제히 하얀 풍선을 위로 날렸습니다. 사랑 가득한 가정으로 입양되길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전해졌을까요? 2천 개의 하얀 풍선은 우리의 소망을 담아 저 멀리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자리에는 '홈인'이라고 적혀 있는 빨간색 카드를 들고 있는 관중의 모습도 곳곳에서 보였는데요, '홈인'은 입양대기 아동이 새 가정(HOME)에 들어가기(IN)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문구입니다. 메인 전광판 '빅버드'에는 경기 중간 마다 '웃는 모습이 귀여운 현우', '누구보다 씩씩한 성준이' 등 입양대기 아동의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이어 이날의 하이라이트 애국가 제창이 시작되었습니다! 입양가족을 대표해서 오승주, 최승희 부부와 찬영, 다니엘, 요셉 세 명의 자녀가 함께했는데요, 지난 번 경기에서 시구를 했던 가족들은 조금은 여유로운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날 경기에는 오승주, 최승희 부부 뿐 아니라 200여 명의 입양가족이 경기에 초대 받아 함께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정의 품을 찾아 Home In 하기를

이날 SK선수들의 유니폼에는 '하진', '윤희', '현우', '성준', '다원' 처럼 낯선 이름이 하나씩 붙어있었습니다. 이 예쁜 이름은 바로 입양대기 아동의 이름입니다. 아이들의 응원이라도 있는 듯,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을 누비던 SK와이번스 선수들은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의미 있는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감독과 선수들은 경기를 마친 뒤 "뜻 깊은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 감사하다, 많은 야구팬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 있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길 바란다"고 감동적인 소감을 전했습니다. SK와이번스와 함께한 이 행사를 통해 기적 같은 일이 생겨 아이들이 가정의 품을 찾아 Home In~! 할 수 있게 되기를 야구장에 울려 퍼진 함성만 큼이나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글_김병수 · 홍보팀장



- 1 입양가족을 대표하여 애국가를 부른 오승주, 최승희 가족
- 2 입양가족 사진전을 감상하고 있는 사람들
- 3 희망을 담고 하늘 위로 올라가는 풍선
- 4 아이들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

무대에서 찾은 희망

미혼한부모 극단 '다운다한'의 연극 '할 수 있어!'

경기도 수원역에서 큰 길을 쪽 따라가다 보면 철따라 핀 꽃이 돋보이는 건물이 보입니다. 그곳에 햇빛을 받아 유독 섧노랗게 보이는 캥거루스토어가 있는데요. 캥거루스토어는 미혼한부모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익매장입니다. 이곳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수현 씨가 오늘은 무슨 일인지 보이지 않네요. 아, 오늘 고운뜰 10주년 연극을 한다고 들었는데 배우로 변신중인가 봅니다. 수현 씨를 찾아 들어간 강당에서는 마침 연극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형광등 불이 꺼지고, 은은한 보랏빛의 무대 막이 올랐습니다. 미혼한부모로 구성된 극단 '다운다한'의 연극 '할 수 있어!'를 함께 보시겠어요?

허름한 세탁소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희망의 이야기

한가로운 주택 1층에 위치한 작은 세탁소. 무테안경에 검정색 반팔라 티셔츠, 그리고 풀색 니트 조끼를 입은 세탁소 주인은, 특별 할 것 없는 평범한 중년의 사내입니다. 하지만 세탁소 주인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손님의 옷을 받아들면 그 옷의 주인이 겪었던 일을 현실처럼 느끼는 능력인데요! 기쁜 일도, 때로는 슬픈 일도 모두 생생하게 기억해냅니다. 따사로운 햇살에 줄음이 물려오는 오후 2시, 세탁소에는 앓던 얼굴의 은영이가 옷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아저씨~안녕하세요!” “그래, 은영이구나” 환한 미소로 반가움을 표시하는 세탁소 주인이 옷을 받아들면서 은영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들, 뉴스 좀 보자~” 아버지와 오빠는 길다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은영이는 이 집에 막내딸입니다. 애교 많고, 여느 고등학생처럼 가끔은 오빠와 사소한 일로 투닥거리기도 하는 평범한 소녀입니다. “다녀왔습니다” “우리 은영이 왔구나!” “응, 아빠~나 용돈이 다 떨어졌는데...” “그래? 우리 막내 공주, 용돈이 떨어졌으면 아빠가 줘야지~” “아빠 쟁!!” 은영이가 함박웃음을 지으며 돈을 받아들고 오빠를 향해 허를 쑥 내뺍니다. “메롱!” 계속 이어질 것만 같던 은영이와 가족의 행복한 일상. 그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여느 날처럼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은영이는 평소와는 다른 풍경에 당황합니다. “아빠! 집이 왜 이래? 여기



이 빨간 딱지는 뭐고?” 이어 술취한 아버지와 오간 몇 번의 고성. 급격하게 어려워진 형편에 적응하고, 매일 술취한 아버지와 다투는 일을 견디는 일이 은영에게는 너무 힘듭니다. 갑작스레 벌어진 일에 잘 버티던 은영이도 이내 지쳐갑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다고!” 그런 그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만 같았던 남자친구는 그녀의 임신 소식에 돌변합니다. “아...은영이구나. 나 지금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연락을 주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자친구는 소식을 끊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두려움, 무엇보다 의지할 데가 없다는 절망감에 눈물 마를 날 없는 생활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느새 곁에는 한 생명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용기를 내 번호를 누릅니다. “안녕하세요, 고운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미혼한부모와 아기를 위한 공간, 고운뜰

은영이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향해 힘찬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고운뜰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봄, 은영이와 같이 어려움 속에서도 곳곳하게 아이를 양육하며 살아가려는 미혼한부모와 아기를 위한 공간이 되어졌습니다. 이들이 심리적·경제적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공간과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 그리고 임신·출산으로 학업을 마치지 못한 엄마들을 위해 대안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운뜰 대안학교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졸업장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을 통해 많은 엄마들이 학교 졸업장을 받고 취업을 통해 경제 자립도 하고 있습니다. 10년의 시간동안 고운뜰에서 많은



1, 2 열연 중인 배우들의 모습
3 연극이 끝난 뒤 무대인사를 하고 있다
4 미혼한부모와 아기를 위한 공간, 고운뜰 전경

미혼한부모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건 고운뜰 원장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그들을 따뜻하게 바라봐준 이웃들이 늘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

가족에게 임신 소식을 숨기고 울며 지낸 날들, 아이를 잘 키워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모두에게 당당해지고 싶은 마음... 쉽게 할 수 없는 자신의 실제 이야기를 친구하게 터놓듯 담백하게 얘기하는 그들의 용기에 감동을 받은 걸까요? 관객석 여기저기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연극도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연극이 끝나면 극단 '다운다한'의 배우들은 자신들을 웃고 울렸던 연극무대를 내려와 다시 엄마로, 직장인으로, 학생으로 돌아갑니다. 연극무대에서 그랬던 것처럼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당당한 주인공'으로 살기를, 그들의 삶에 힘찬 지원을 박수를 보냅니다. [#하트](#)

글 신유정 · 홍보팀

미혼한부모와 아이들의 편안하고 따뜻한 집, 고운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16번길 17-3 (031-216-9004)

꾸준함의 아름다움, 현대홈쇼핑



4월 17일, 홀트체육관에서는 승리의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고양시장컵 홀트전국휠체어농구대회에서 9년 만에 고양홀트휠체어농구단이 우승했기 때문입니다. 주장이었던 조승현 선수의 부상에 어렵게 이뤄낸 우승이었기에 더욱 벅찬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승리의 순간에 함께 해준 기업이 있습니다. 선수들과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눈, 현대홈쇼핑입니다.

10년을 한결같이, 도움의 손길을 건네준 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과의 인연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혼한부모를 향한 사회적 시선이 부정적이었던 당시, 미혼한부모 시설 설립기금에 동참하는 것으로 현대홈쇼핑과 홀트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현대홈쇼핑은 기업에서 후원을 하기는 부담되는 상황이었지만 아이들과 엄마가 머물 수 있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니 후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1 휠체어농구대회에 매년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현대홈쇼핑
2 고양홀트휠체어농구단

이후 현대홈쇼핑에서는 케이블 홈쇼핑 모금방송을 통해 어려움에 놓인 이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나 뇌병변, 뇌수종 등의 복합장애를 앓고 있었던 아동, 루푸스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딸과 백내장을 앓고 있는 저소득 모녀 가정 등 많은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서도 '10년 전 모금방송을 통해 후원신청 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30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소개되었던 이웃들의 이야기에 매 회 100여 명의 후원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현대홈쇼핑과 펼쳤던 또 하나의 동행은 2012년 12월에 진행되었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목도리 캠페인입니다. 자연 바람을 이용해 목도리 만드는 기계를 도입하고,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대중들의 참여를 통해 후원하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그 해, 차가웠던 바람과 1만 2천여 명의 참여로 만들어냈던 따뜻한 목도리는 홀트의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었습니다.



3 2012년에 진행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목도리 캠페인'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며... 장애인 지원 활동

홀트는 매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매년 홀트전국휠체어농구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홀트전국휠체어농구대회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장애인스포츠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대홈쇼핑은 이 대회에 매년 2천만 원씩 무려 8년 동안 지원했습니다. 지속적인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농구뿐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4월 14일에는 '현대홈쇼핑배 전국 장애인양궁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로 3년째 맞이하는 '현대홈쇼핑배 전국장애인양궁대회'는 2011년 '현대백화점 여자양궁단' 창단을 계기로 장애인 양궁 저변 확대를 위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대홈쇼핑의 이런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장애인 스포츠와 더불어 장애인 권익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나눔을 넘어 대중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잇는 끈이 되어준 현대홈쇼핑. 그 끈이 날이 갈수록 두꺼워지길 기대해봅니다. 홀트

‘행복전도사’ 국선자 교장선생님의 향기나는 결연 허브 이야기



‘교장실’이라고 하면 왠지 호랑이 교장선생님께서 ‘이눔~’이라고 말하실 것 같아 선뜻 다가서기 어려운 느낌이지만 행복전도사라는 특별한 별명을 갖고 계신 교장선생님이 계시면 어떨까요? ‘향기나는 결연, 허브’로 캄보디아의 아이를 후원하고 계신 국선자 후원자님의 특별한 결연이야기를 소개합니다.

Q1. ‘행복전도사’라는 별명은 어떻게 갖게 되셨어요?

행복전도사라는 즐거운 별명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지어 주셨어요. 언젠가부터 아이들에게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행복수업’이란 이름으로 나누기 시작했는데, 제자들과 선생님들이 지어주시는 별명이예요. 다른 별명도 메모해 두었는데 거의 280개 정도나 되더라고요.(웃음) 자랑스럽고 또 고마운 별명이지요.

Q2. ‘향기나는 결연, 허브’로 해외아동을 후원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지난 2015년부터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달렌을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트를 통해 미국의 후원자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되고 나서 후원자님께 보답하고 싶어서 홀트를 통해 다시 찾고 싶었는데 너무 오래전이라 찾을 수가 없

었어요. 대신 그 사랑을 보답하고자 저도 결연후원으로 달렌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어요.

Q3. 후원을 받은 적이 있으셔서 좀 더 특별한 마음으로 후원하실 것 같아요. 달렌은 어떤아이인가요?


제 책상 위에 가족사진이랑 달렌 사진, 그리고 저를 후원해주셨던 마리안네 후원자님 사진도 같이 두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처음 달렌 사진을 받아보았을 때, 충명한 눈빛과 살포시 웃는 미소가 너무 예뻐요. 제가 딸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우리 달렌을 늦둥이 딸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홀트 드림센터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에 가면 동생을 열심히 돌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착하죠?

Q4. 달렌이 어떤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달렌의 꿈은 의사예요. 그런데 꼭 의사가 되지 않아도 좋아요. 제가 결연아동이었을 때, 열심히 공부했던 것처럼 달렌도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멋진 어른으로 성장할 거예요. 달렌을 비롯한 모든 후원 아이들이 후원을 받는다는 것에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그것이 모든 후원자가 갖는 바람일 거예요.



Q5. 후원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제 이야기 안에 자연스럽게 후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요.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에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어려운 나라들의 아이들을 돕는 인류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요. 외식 한번 줄이는 정도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하니 망설임 없이 한명쯤 도움을 주는 건 어떨까요? 후원하다 보면 아이의 편지나 그림, 사진이 오는데 그럴 때마다 주는 것 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고 느낀답니다. 

글_이현주·홍보팀

달렌으로부터 도착한 이야기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편지와 선물을 주시면 너무 기뻐요! 지난번에는 학용품 보내주시고, 자전거도 보내주셔서 동생과 함께 열심히 타고 있어요. 잃어버리지 않게 안전한 곳에 잘 지켜두고 있어요. 저희 가족들도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고 해요. 후원자님 보고싶어요.



사회공헌

KB손해보험, 365 베이비 케어 키트 협약



5월 2일 KB손해보험과 미혼한부모를 위해 양육 용품을 후원하는 '365 베이비 케어 키트'의 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KB손해보험은 6천만 원을 전달했으며, 임직원들과 함께 '365 베이비 케어 키트' 배송물품을 직접 포장하는 자원봉사도 진행했다.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 후원금 전달



3월 28일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은 지적장애인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후원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 후원금은 지적장애인의 자립역량 강화 교육 및 활동 지원에 사용된다. 또한 재단 임직원은 자립홈 장애아동들과 정기 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롯데리아 사롯데 봉사단과 미혼한부모가정 나눔이



3월 24일 (주)롯데리아 후원으로 사롯데 봉사단 19명과 미혼한부모 23가정이 함께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아쿠아리움을 다녀왔다. 미혼한부모와 아동, 그리고 봉사자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소감을 전했다.

서울본부세관, 후원금 전달



3월 3일 서울본부세관에서는 '제11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후원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 후원금은 사랑나눔카페 내 자율모금함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전달식에는 명예서울세관장 김병만 개그맨도 함께 했다. 서울본부세관은 2015년부터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세상을 아름답게' 세아그룹의 따뜻한 나눔 결실



기업 세아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의료문제 치료가 시급한 아동을 위한 임직원 모금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으로 모금된 기금과 임직원의 격려로 아동은 위급 수술을 잘 마칠 수 있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랑을 실천한 세아 임직원에게 감사를 전했다.

본부

배우 박시연, 홍보대사 '홀트패밀리'로 위촉

5월 29일 배우 박시연 홍보대사 '홀트패밀리' 위촉식이 진행되었다. 박시연 씨는 주영훈·



이윤미 부부, 스타강사 김미경 원장 등에 이어 다섯 번째 가족이 되었다. 이날 박시연 씨는 홀트패밀리로서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는 소감과 감사를 전했다.

네팔 홀트 드림센터 개소식 및 현판식



5월 4일 네팔 카트만두 칼리마티에 위치한 홀트드림센터 개소식과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네팔 관계자, 지역주민, 센터이용자들이 참석해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네팔을 후원하기 위해 천사 네트워크 회원들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선·정혜영 홍보대사 꿈과희망지원금 1억원 전달



3월 8일 홍보대사인 선·정혜영 부부가 '2017 꿈과희망지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꿈과희망지원금은 위기가정 아동교육비 지원프로그램으로, 선·정혜영 부부는 매년 1억원씩 9년째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선 홍보대사는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 말라는 당부의 말과 감사의 말을 전했다.

지방사무소

부산사무소, 부산세관 사랑나눔카페 오픈행사



5월 31일 부산세관 사랑나눔카페 오픈행사를 진행했다. 사랑나눔카페는 부산세관 직원복지 향상과 일정 수익금을 기부하여 사랑나눔을 실천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카페이다.

대구사무소, 대구맘 알뜰장터 개최



4월 22일 화창한 날씨 가운데 인터넷 카페 대구맘 회원들과 의료문제 아동 치료비 마련을 위한 아나바다 알뜰장터가 대구 이월드 정문광장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는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200가족과 1,500여 명의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했다.

충청사무소, 참 행복한 우리가족 한마음축제



5월 13일 제 12회 입양의 날을 맞이하여 대전광역시 주최로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창대체육관에서 250여 명의 입양 가족들이 모여 서로 화합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입양가정 유공자 표창, 미술공연, 동화콘서트,

명랑운동회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인천사무소, 입양의 날 기념식 개최



입양의 날과 입양주간을 맞아 인천여성가족재단 대강당에서 '제 12회 입양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입양가족, 입양단체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350여 명이 참석했고, 시장 표창과 축하공연, 장애인합창단인 '영혼의 소리'로 합창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광주사무소, 입양가족 페스티벌



5월 13일 입양가족, 후원자, 자원봉사자, 입양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양가족 페스티벌'을 주제로 입양의 날 행사가 진행됐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입양의 날'을 알리고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많은 사람들이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다.

경기사사무소, 입양의 날 행사



5월 12일 경기도청에서 주최하는 제12회 입양의 날 행사가 용인 에버랜드 힐사이드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입양가족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통

해 입양의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강원사무소, 사랑의 바자회 개최



강원사무소와 후원회는 4월 28일, KBS춘천방송총국에서 사랑의 바자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천여 명의 시민과 후원자가 함께 했으며, 후원금은 지역 내 중증 장애아동 수술비·저소득다문화가정을 위해 사용된다.

일산복지타운

봄맞이 캠프 열어



3월 15일 타운 이용자 17명과 인솔자 13명이 경상북도 영주에 위치한 다스림 국립치유원으로 1박2일 캠프를 다녀왔다. 오랜만에 외출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홀트학교

용재 오닐·임동혁의 작은 음악회

5월 23일, 홀트학교 다목적실에서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과 피아니스트 임동혁의 '평창스페셜 뮤직&아트 페스티벌' 홍보대사 위촉기념 작은 음악회가 진행됐다. 이날 용재 오닐과 임동혁은 예그리나 오케스트라, 합창단 등의 공연에 이어 답주로 연주하는 등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HOLT NEWS

종합사회복지관

고양장애인복지관, 연구조사사업 실시



5월 17일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고양시청 장애인복지과, 삼육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고양시 장애인복지 증진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조사사업을 실시했다. 6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장애유형별 당사자 간담회를 통해 직접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하남복지관, 인성나눔 가족의달 체험행사 진행

5월 20일, 관내 한마음 지역아동센터와 미사강변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인성나눔-가족의 달 체험행사'를 진행하였다. 이 행사는 가족들의 소통과 단합 기회 마련을 위해 기획했으며, 가족 소통 강의와 가족티셔츠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수영복지관, 롯데리아 사투데봉사단 밀반찬 지원활동



3월 15일 롯데리아 사투데봉사단이 수영구내 어르신들을 위하여 특별한 점심을 선물했다. 특별메뉴로 한우육개장, 돼지갈비찜, 깍두기로 평소 복지관에서 조리하기 어려운 메뉴로 푸짐한 밀반찬을 만들었으며, 덕분에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식사를 전달하였다.

본리복지관, 본리 어버이잔치



5월 8일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5월 16일, '2017년 본리 어버이잔치'를 실시했다. 지역 어르신 3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어르신의 적극적인 참여로 행사가 성황리에 이루어 질 수 있었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아침粥, 미혼한부모 자조모임



미혼한부모 자조모임인 '행복한 엄마들의 노래'가 4월 29일 아침粥에서 개최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홀로 아동을 양육중인 미혼한부모를 지지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모임에는 '버블 매직쇼', '선배 멘토와의 만남' 등의 프로그램으로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고운들, 에버랜드 나들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 삼성생명 후원으로 에버랜드 나들이를 진행했다. 이번 나들이에는 미혼한 부모와 아동, 퇴소 양육모 등 24명이 참석했으며, 운영위원인 유경아 방송인도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다.

아름들, 문화나들이로 연극 관람

4월 29일, 미혼한부모를 위한 문화나들이의 일환인 연극 관람을 진행했다. 대부분 연극관람이 처음이라 배우들과 직접 대면하는 생생한 무대

를 신기해 하면서 연극에 집중하고, 공감하며 주말의 여가를 만끽했다.

대구클로버, 어린이날 행사 '사랑가득 행복가득'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이월드 나들이를 진행했다. 이월드에서는 어린이날을 특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자유이용권 티켓을 후원해 주었으며, 봉사자들이 함께 해 놀이기구를 타며 미혼한부모와 아이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광주클로버, 개원식 진행



5월25일 홀트광주복지센터 지하강당에서 광주지역 기관장, 광주후원회원 등 관계자와 주민들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감사패 수여, 탐립더스 위촉식, 예덴병원 외 4곳과 협약식이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축하공연도 함께 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빠의 사랑을 싣고'



마포구에 거주하는 부-자녀 8가정을 대상으로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5회기에 걸쳐 '아빠의 사랑을 싣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아버지 돌봄 역량 강화 및 부-자녀 관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본 프로그램에는 자조모임을 비롯해 요리, 미술 활동 등이 진행되었다.

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나들이



3월 25일, 다문화가족 80명과 함께 용인 에버랜드에 가족 나들이를 다녀왔다. KT&G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이 행사는 가족과의 나들이를 통해 긍정적인 가족관계 증진을 도모하고 부모-자녀가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기회가 되었다.

춘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7년 프로그램 개강식



3월 6일 센터 6층 강당에서 내빈 및 센터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강사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프로그램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강식은 교육 프로그램 소개, 말하기 대회 시상식 및 발표, 감사 위촉, 감사패 전달 등이 진행됐다.

전주영아원

나들이, 아가아 꽃놀이 가자

후원자의 지원으로 4월 11~12일 아동 15명이 롯

2017 Summer

홀트어린이집, 흙놀이터 체험



만 3~5세 원아들이 서울어린이회관 내 흙놀이터 '노리토키즈 체험관'을 다녀왔다. 진흙을 밟으면서 촉감놀이도 하고 자갈을 밟고, 통에 자갈을 넣어 소리를 들어보는 소리체험을 하는 등 즐거운 체험시간을 가졌다.

어린이집

중동어린이집, 텃밭·화단 만들기



어린이집 내 작은 텃밭에 희망하는 가족이 야채와 꽃모종을 심어 중동 텃밭과 화단을 만들었다. 온 가족이 정성스럽게 모종을 심고 등·하원 시 부지런히 물을 주며 키우고 있는데, 실외놀이 시간에는 아이들에게 좋은 자연탐구의 장이 되고 있다.

마포어린이집, 봄 나들이



4월 26일, 월드컵공원으로 봄나들이를 진행했다. 선생님, 친구들과 곳곳에 있는 작은 화단과 튼튼밭 주변을 산책하며 봄의 풍경을 감상하고,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도 나누고, 아름다운 꽃도 구경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은방울어린이집, 팜랜드 견학



5~7세 아동들이 4월 11일 안성의 팜랜드 견학을 다녀왔다. 아이들이 트랙터 탑승, 전시회 관람, 피자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후원회

대전후원회 나눔 교육 진행



3월 17일, 대전후원회에서는 대전후원회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나눔교육 '패밀리메이커'를 실시했다. 가족의 의미와 나눔의 방법을 고민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즐겁고 행복한
우리 가족 만들기
홀트심리상담센터가
함께 합니다



대구심리상담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59 3층
053-627-8875

인천심리상담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04(간석동)
032-424-5839

광주심리상담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164(화정동)
062-363-8878

홀트아동복지회
복지사업의 중심은
“아동 행복”입니다

● 후원사업 소개

위탁아동양육 후원

친부모가 키울 수 없어 홀트의 보호 아래 자라는 위탁아기들의 분유, 기저귀 등 생필품 지원과 교육비, 의료비, 재활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미혼한부모가족 후원

도움이 필요한 미혼한부모를 위해 상담과 출산 지원, 양육비 및 아동물품 지원, 의료와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정 아동 후원

저소득가정 및 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비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후원

생활 지원과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과 장애인을 위해 복지시설과 특수 학교를 운영해 체계적 치료와 자활훈련을 돕고 있습니다.

장학 후원

1982년부터 시작한 '홀트장학금'과 저소득가정 및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꿈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아동결연 및 사업 후원

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 네팔 빈민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과 급식 지원, 보건 서비스 및 의료 지원을 펼쳐 해외 빈곤국에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 정기후원 1899-0923
- 후원문의 02-331-7073~6
- ARS 060-700-1006
- 홈페이지 www.holt.or.kr
- 후원계좌 479037-01-000461(국민)
홀트아동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선 홍보대사

국내 해외 아동결연 후원문의

HERB & HUB 1899-0923



We are professional

철에 대한 세아의 실력과 전문성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강관, 특수강, 자동차 부품, 용접재료, 물류, IT에 이르기까지

창조적 혁신으로 하나되어 움직이는 철강소재 전문기업, 세아!

강철같은 실력으로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겠습니다.

SeAH